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5.(수) 11:00 배포 2026. 11. 25.(수) 11:00

‘케이-웹툰’ 산업 성장과 저작권 보호 경험, 아태 지역에 전수

- 11. 25.~27. ‘세계지식재산기구 웹툰 분야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
- 아태 지역 9개국 저작권 당국 관계자 및 웹툰 분야 창작자 초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과 함께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 웹툰 분야 멘토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저작권 분야 신탁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활용해 2007년부터 세계 각국의 저작권 당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저작권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기존의 저작권 정책·제도 중심의 연수에서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인 웹툰을 주제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의 저작권 당국 관계자와 웹툰 분야 창작자를 초청해, 한국 웹툰 산업의 성장 과정과 저작권 보호·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무단 학습과 해외 불법유통 등 새로운 저작권 쟁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 웹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 온 저작권 보호·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참가국의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한다.

국내 웹툰 유관 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한국 웹툰 산업 성장 과정과 저작권 보호·활용 사례 발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국내 웹툰 유관 기관 관계자와 웹툰 분야 인공지능(AI) 기업 '툰스퀘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한국 웹툰 산업의 성장 과정과 정책적 지원 사례, 저작권 보호 체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창작·향유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이 한국의 웹툰 산업 성장 경험과 저작권 정책 사례를 자국의 산업 육성 및 제도 발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웹툰 환경 변화에 따른 웹툰 산업과 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웹툰 산업 현장 방문, 창작자와의 교류로 실질적 경험 공유

11월 27일에는 한국만화박물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국내 웹툰 유관 기관 현장을 방문해 한국 웹툰의 발전 과정과 창작·산업 생태계를 살펴본다. 이어 국내 웹툰 작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쇼'를 통해 웹툰 창작 과정과 저작권 보호·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창작자 관점에서 웹툰 산업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저작권 보호·활용 경험과 웹툰 산업의 성장 사례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각국의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저작권 정책 경험 공유가 각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행사 사진

담당 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현성 (044-203-2471)
		담당자	사무관	이승민 (044-203-25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